

굴 양식업자 전복도 키운다

농식품부, 양식업 경쟁력 강화... 품종 전환 자율화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양식업자의 양식품종 전환과 양식어장 변경 등이 자율화된다.

◇양식어업,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 전남도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돕기 위해 253억 원을 들여 지열, 폐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 대체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을 펼친다.

간 유류 사용량은 어가당 평균 500~600드립으로 1억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육상 양식어가에서는 어패류 성장에 적합한 양식장의 적정 온도 유지하려고 경유와 병커C유를 주로 사용하는데 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

지난해 전남도가 140억원을 지원했던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통해 히트펌프와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어가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6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어업인의 사용 수요가 증가해 예산을 더욱 확대했다.

업 면허 지급기준이 양식 품종에서 양식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기준을 김, 미역, 다시마, 굴, 전복 등 품종에서 가두리식, 투석식 등 양식 방법으로 바뀌 50여 개에 달하는 면허 종류를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준이 변경되면 돌김 양식업자는 같은 해조류 중 투석식으로 양식하는 우뚝가사리·망둥이·수산산물 등을, 굴 양식업자는 조개류 중 양식방법이 같은 전복·진주조개·홍합·가리비·기타 조개류 등을 양식할 수 있다.

육상 양식장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남도는 양식어업인들에게 히트펌프와 폐열을 활용하는 폐열교환기,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도내에는 전복 종패와 어류, 뱀장어 육상 양식장 1200여 곳이 있는데 고유가와 양식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양식어업 품종전환 쉬워져 =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양식어

이인곤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용 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식어업 품종전환 쉬워져 =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양식어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업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내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 임문택기자 mtlim@/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웃사랑 심어오”

순천시 해룡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만재) 회원 40명은 최근 왜성체협농장 3300㎡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감자심기를 실시했다. 주민자치위는 올해 씨감자 22박스를 심어 40t(200상자)을 생산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 예정열기자 jjj@kwangju.co.kr

보성 '한국차박물관' 상표 등록



보성군이 최근 '한국차박물관' 상표 등록을 마쳤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차를 테마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한국차박물관'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상표 활

용으로 박물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11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이번에 출원분야는 ▲서비스표(박물관 운영업) ▲업무표장(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 2개 분야이다.

상표이미지는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 슬로건과 '한국차박물관'을 합성한 이미지로 세계화에 맞게 영어와 한문을 같이 표기

했다. '한국차박물관' 상표는 박물관 홈페이지 및 박물관 각종 업무 추진,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차박물관은 지난 2010년 9월 개관 이후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지난해부터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으로 다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 선성근기자 sun@

순천보호관찰소 농가 돕기 호응

순천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가 올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7명을 농가에 투입, 본격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사회봉사자 2100여명을 전남 동부권 지역의 고령 및 부녀 농가에 투입되어 봉사활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김행석 소장은 "올해 일손이 부족한 고령 농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은종기자 ejkim@

새 출범 농협은행 사업 본격화

전남 동·서부권 경영협약

지난 2일 새 출범한 NH농협은행이 올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박종수)는 지난 6일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에서 전남 동부권 사무소장(지부장·지점장)과 경영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7일 목포신안시지부

에서 서부권 사무소장과 경영협약을 체결했다. 9일에는 중부권(나주시지부)과 경영 협약을 가질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출범후 처음 실시한 이번 경영협약식을 통해 영업본부장과 사무소장(지부장·지점장)은 금융기관간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경영지표 달성을 다짐했다.

박종수 영업본부장은 "NH농협은



행이 협동조합의 수익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지표를 달성하고 지역 농·축협과의 협력사업, 농정지원단 사업, 연합사업 등에도 사무소장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

녹차 신제품 '참녹' 농가 보급

전남농기원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는 단일품종 차밭 조성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신제품 '참녹'을 집중 육묘해 농가에 보급한다.

'참녹'은 차나무 중에서 나무세

력이 좋고 수확량이 많으며 동해(凍害)에 강한 특성을 가진 품종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는 올해 5000본(2ha용)을 농가에 공급하고, 육묘시설을 증축해 연간 10만본(4ha) 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차나무는 지난 2009년부터 UP-OV(국제 식물신제품 보호연명)의 품종보호 대상작목으로 지정돼 로열티에 대한 부담이 크다.

특히 국내 차밭의 경우 대부분 재래종 차나무가 혼재돼 이른 봄철 새싹이 올라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기계화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여수 순천 광안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본부장	김동호
취재부장	임문택
김계중	주각중
부국장	부국장
박영진	김은종
차장	기자
선성근	박성태
기자	기자
김창화	김윤성
기자	기자

전북

전북 학교급식 만족도 최하위

전북지역의 학교급식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연세대 양일선 교수팀에 의뢰해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은 77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 76.4점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교육청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83.4점)보다 6.4점 낮은 77점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

로 96.3점이며, 대전 91.2점·부산 90.1점 순이다. 특히 전북은 13개 항목 가운데 맛·급식 영양·위생 등 11개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교 12곳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9천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월 전주조사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 = 강철수기자 knews@

전주 시내버스도 파업하나

노조 92% 찬성...임단협 조정 결렬시 12일 돌입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90%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교통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커졌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노조원 653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641명이 참여해 589명(91.88%)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버스본부는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결렬될 경우 오는 12일부터 파업

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조정안에 대해 일정부본 합의가 진행된 만큼 정확한 파업 일정은 9일 이후에 밝힐 계획이다.

김동균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8일 지노위에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사측과 최종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실패하게 될 경우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노조 인정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버스자본가들은 지금이라도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성실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버스본부는 지난 2010년 12월8일 민주노조 인정과 임·단체협상 체결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주지 않자 총파업을 결행했다.

결국 버스파업은 해를 넘겨 2011년 4월 전주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합의서를 교환하면서 146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북취재본부 = 강철수기자 knews@

전염병 연구시설 정읍서 기공

오는 2014년 항바이러스 전문 연구 시설이 정읍에 세워진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정혁)은 7일 정읍시 신정동 연구소 산하 바이오소재 연구소 현장에서 '친환경 바이오 소재 R&D 허브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는 사람과 가축 공통 전염병(조류독감·AI)을 비롯해 생물테러 전염병(탄저병), 기후변화성 전염병(말라리아) 같은 국가재난형 감염질환에 대응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소재 연구시설이다.

센터는 총 188억원(국비 148억원 포함)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전체 6745㎡) 규모로 2014년 완공 예정이며 항바이러스 생물소재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시설과 기기분석실·분석센터·연구지원 시설 등이 입주한다.

/전북취재본부 = 박기섭기자 parkks@

센터는 총 188억원(국비 148억원 포함)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전체 6745㎡) 규모로 2014년 완공 예정이며 항바이러스 생물소재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시설과 기기분석실·분석센터·연구지원 시설 등이 입주한다.

/전북취재본부 = 박기섭기자 parkks@



“경운기 야간 운전 조심하세요”

“학교폭력 신고부터 하세요”

남원경찰 응성중 예방교육

학교폭력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남원경찰서 방촌원 서장은 지난 6일 모교인 응성중학교를 방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학생들이 실제 체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

련됐다. 방 서장은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서장은 "학교폭력 발생시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해야 경찰이 나서서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며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와 재발방지가 우선이지만 보복 폭행시에는 무관용,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 백선기자 bs8787@

이한주 남원시장이 지난 6일 수지면 초리마을 등지에서 경운기 야간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이 시장은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취지에서 '120 봉사대'와 함께 현장행정에 나섰다.

/전북취재본부 = 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전주 역사박물관 두달간 '근대 황실 사진전'

전주 역사박물관과 한미사진미술관은 근대 사진전 '대한제국 황실과 근대 조선인물'을 5월 6일까지 2개월여 동안 개최한다.

한미사진미술관은 가현문화재단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 사진을 연구해 한국

사진사를 체계화하는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한미사진미술관이 소장한 근대 황실사진 컬렉션과 순종의 장례식을 담은 사진 등 근대국가기인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 = 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비료·똥자리용 상토 무상 지원

군산시는 올해 예산 44억원을 확보해 관내 농가에 맞춤형 비료와 똥자리용 상토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가 이번에 지원하는 맞춤형 비료는 26만2159포대, 똥자리용 상토(모관흙)는 37만2711포대이다. 수혜 농가는 7천371농가, 공

급면적은 1만1508ha에 달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맞춤형 비료를 제공한 덕분에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었다"면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비료와 모관흙을 계속적으로 개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 박기섭기자 nogusu@

정읍 '단풍미인 한우' 판매장 민간 위탁

정읍시는 내장산 양산호에 자리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

정읍시는 지난 6일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법인과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의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농조합은 3년 동안 매장을 운영한다.

시는 정읍 한우를 알리는 판로·마케팅 전진기지로 지난 2008년 지상 4층(연면적 1301㎡)의 한우 홍보판매장을 지었다. 1층 한우홍보·전시장, 2층 한우 식당, 3층 편의시설, 4층에 회전식 스테이크 전문식당이 있다.

/전북취재본부 = 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농산물 온라인 판매 본격화

순창군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해까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42개소 개설한데 이어 올해도 5개소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9년도에는 전자

상거래 우수농가로 '꽃간배' (대표 이명숙)와 '리프팜 농장' (대표 조상단)이 농촌진흥청장을 수상하는 등 온라인 판매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전북취재본부 = 이동희기자 dhlee@